大韓醉麻科學會誌의 分類과 所感

啓明大學校 醫科大學 醉麻科學教室

裴 政 仁 · 全 在 奎

= Abstract =

Classification and Impressions 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Jung In Bae, M.D. and Jae Kyu Jeon,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Keimyung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d Hospital, Taegu,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was first Published in November 1968. It has been growing rapidly in quality as well as in quantity for the past 15 years. It now has an accumulation of 700 articles coming from many different fields on a wide variety of subjects.

To develop further our Korean Anesthesia Society in conjunction with this journal, it is time to classify our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a convenient way to use these articles as a reference.

Therefore, it has been decided to classify the 700 articles according to the subject material and these have a permanent record of this expressed opinions in these journals for ready reference in the future.

서 론

大韓醉麻科學會誌 창간호가 1968년 11월에 發刊된 이래 醉麻科學會誌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매년 질로 양으로 착실히 發展해 온 大韓醉麻科學會誌는 벌써 15년의 歷史를 가지고 그간 700편의 다양한 論文이 發表되었다.

15년간 大韓醉麻科學會誌의 歷史속에서 700편의 論文이 發表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같이 거짓없는 歷史的 한 학문의 發展을 목격하면서 우리 온 會員들은 함께 기뻐할 일이며 더욱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의 결의를 재 다짐할 때이다.

한 학문의 發展은 個人이 各 分野에서 연구한 그 結果를 發表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습득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學會誌가 量으로 質로 發展함은 곧 學會의 發展이요 또한 학문의 發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쌓아온 학문의 업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재고하여 제목이라든 종류별로 分類하고 外國의 문헌이 아닌 우리의 論文을 참고자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염원하면서 본 저자들은 大韓醉麻科學會誌 총 700편의 제목을 항목별로 分類하고 소감을 함께 論하였다.

제목분류는 항목을 중심으로하여 論文을 쓸때 참고 문헌을 찾기 쉽도록 정리하였고 그의 년도별 논문수, 저자수, 논문의 종류(임상적고찰, 임상적연구, 통계적고찰, 실험적연구, 타과의와의 합동논문, 증례보고등), 페이지에 따른 분류, 기관과 학교에 따른 분류등을 년도별로 구분하였다.

分類의 結果와 所感

別紙와 같이 제목별로 分類하여 인용하기 쉽게 分類하였다.

표 1. 논문수의 년도별분포(창간호 1982년도)

년도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합계
논문편수	9	18	21	15	22	37	21	38	49	74	69	81	70	79	97	700
권 수	1	1	1	1	2	2	1	2	2	3	4	4	4	4	4	36
총페이지	91	95	127	93	165	203	153	192	200	230	419	480	448	548	643	

표 2. 15년간 논문 종류별 현황

년도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합계
논문종류																
임상적 고찰		2	3	2	3	2	6	2	2	8	8	7	8	13	17	91
임상적 연구		1	—	2	—	—	5	—	4	2	2	—	4	2	1	28
통계적 고찰		—	—	—	—	—	1	1	1	1	—	2	—	1	2	10
실험적 연구		—	1	—	—	6	—	—	1	3	—	1	1	2	—	16
타과와의 합동논문		—	—	1	1	3	1	1	1	4	1	4	8	5	4	54
증례보고		1	9	9	4	5	11	9	16	20	26	20	21	22	29	232

1) 論文數의 年度別 分布(표 1)

1968년에 9편의 論文을 실은 91 page의 창간호가 發行되어 '71년까지 4년간 每年 단권이 發行되었으며 1974년을 제외한 1972년~1976년에 걸쳐 年 2권을 發行했으며 차차 page 數도 거의 배로 증가했다.

그 이후 권수가 급증하여 1977년에는 年 3권, 1978년 이후로는 每年 4권으로 page 도 年 500 page 달하고 年 論文數도 80편에서 90편에 달하게 되었고 창간호 이후 1982년 4권에까지 총 700편의 정확한 행부의 수자를 나타내어주어 저자들에게는 더욱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와같은 年度別 통계를 통하여 볼때 총 15년간의 大韓醉麻科學會誌의 양적 동시에 질적 성장이 동시에 현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동시에 많은 전문의의 배출을 의미하였으며 學會의 發展을 시사해주었다.

2) 論文 種類別 현황(표 2)

論文 種類別 分類는 세밀한 分類는 피하고 전체적으로 大別하였으며 논문제목에 있어서 임상적고찰, 임상적연구~통계적고찰, 실험적연구, 타과와의 합동논문, 증례보고 등으로 分類하였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보아 해가 거듭함에 따라 論文의 數의 증가와 더불어 論文의 종류가 다양하였으나 論文數에 비해서 논문 제목은 비슷한 것이 많아 단조

로 왔으며 실증을 느끼듯 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란에는 각종 270편이 포함되었는데 이상 6항에 속하지 않고 다양한 각종 논문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목에 있어서 반복되는 論文만을 간추려서 심고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도 1과 같다.

1) 총 700편을 分類한 結果 증례보고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學會誌의 균형을 다소 잃은듯 하였으며 各種 증례로 인해서 다양하다 하겠으나 내용에 있어서 저자의 主張이 강조되지 않은 것이 많았으며 단지 종래의 증례로 반복하는 듯하였다. 特히 外國論文과 비교되는 것은 마취기록지에 삽입해 넣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으나 실제로 page를 한장 더하는 것 외에는 무익한 듯하였다.

도 1. 15년간 논문 종류별 분포.

표 3. 페이지에 따른 분류

년도 페이지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합계
2	1	3	1	—	1	—	—	—	—	—	3	—	—	—	—	9
3	—	2	2	4	2	5	2	4	3	10	8	8	4	2	2	58
4	1	6	5	1	4	4	7	8	14	12	11	15	7	8	13	166
5	2	3	4	1	2	6	2	7	20	21	13	18	15	20	20	154
6	2	1	5	5	4	4	4	7	3	16	12	16	20	15	20	134
7	1	1	1	2	1	7	1	2	5	7	11	8	12	15	19	93
8	1	—	1	2	3	5	2	3	3	4	6	6	7	8	10	61
9	—	—	1	—	1	2	1	2	1	1	1	8	3	4	6	31
10	—	—	—	—	—	1	—	—	—	1	2	2	—	3	2	11
11	—	—	—	—	1	2	—	2	—	1	2	—	2	1	2	13
12	—	—	1	—	1	1	1	1	—	—	—	—	—	—	1	6
13	—	1	—	—	1	—	—	—	—	—	—	—	—	2	—	4
14	—	—	—	—	—	—	—	—	—	1	—	—	—	1	2	4
15	—	1	—	—	1	—	1	1	—	—	—	—	—	—	—	4
16	1	—	—	—	—	—	—	1	—	—	—	—	—	—	—	2

2) 증례보고 다음으로서는 임상적고찰(13%), 임상적연구(4%)였으며 임상적고찰, 임상적연구, 통계적고찰이 學會誌 論文의 部分을 차지하는데 고찰이란 consideration을 너무 많이 使用하여 독자로 하여금 단조로움과 실증을 느끼게 하였다.

外國의 論文 Anesthesiology, A&A 등과 비교하면 거의 고찰이란 제목이 없고 제목의 다양성을 가져서 한결 흥미로웠다.

3) 실험적연구, 타과와의 합동 논문은 各種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체로 석사 내지 박사학위를 위한 논문인 듯하였다. 4) 기타는 38%로서 위에 기록된 임상적고찰, 임상적연구, 통계적고찰, 실험적연구, 타과와의 합동논문, 증례보고를 제외한 各種 論文 제목을 총괄한 다양한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3) 各 論文의 페이지 數에 따른 分類(표 3)

4 page의 論文이 가장 많았고 4 page, 5 page, 6 page가 거의 大部分을 차지하였고 증례보고가 많았다. 長 page가 적은 것은 Review 내지 Original 論文이 적음이라 사료된다.

4) 참고문헌수에 따른 分類(표 4)

참고문헌은 논문작성에 있어서 인용하기 위함인데 인용된 論文에다가 충분히 참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

로 생각된다. 표 4에 의하면 참고문헌의 數가 2편의 경우와 90편을 인용하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論文 作成의 범위에 따라 당연하다 하겠다.

대체로 참고문헌 10~20개의 참고문헌이 주가 되었으며 우리의 論文을 될수 있는 한 참고해서 아끼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저자수에 따른 分類(표 5)

단독논문이 78편 2인 論文이 196편이었는데 가장 많은 數는 2내지 4인이었다. 그러나 년수가 더해 감에 따라 편성 저자수가 증가되어가는 추세였고 1982년에는 한편 論文에 8명의 저자가 된 論文이 6편, 9명의 저자가 1편 있었다. 이와같이 증례보고에도 다수의 저자를 수록함은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치기 위한 자격구비의 조건으로 사료된다.

요 약

1968년에 大韓麻酔科學會誌는 70 page의 창간호가 발간되어 1982년에 와서는 640 page에 달하게 되었으니 그 동안 급속한 發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15년간 집계된 총 論文數 700편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회원들이 연구한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제목별로 分類하였다. 學會誌를 分類한 후 다

표 4. 참고문헌수에 따른 분류

참고 문헌수 년도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합계
1~5	1	1	—	—	1	4	—	—	1	3	3	2	1	1	4	22
6~10	3	5	6	3	1	7	3	12	16	14	11	14	19	7	11	122
11~15	—	4	4	2	7	12	7	7	10	18	25	15	14	13	13	151
16~20	1	2	4	8	3	7	4	5	8	16	6	17	15	16	21	133
21~25	2	3	4	1	1	3	1	5	7	10	6	12	15	16	20	106
26~30	—	1	—	—	4	—	5	4	2	5	6	9	11	9	11	67
31~35	1	—	2	—	1	1	—	2	2	3	4	7	2	7	10	42
36~40	—	—	—	—	1	1	—	—	1	2	4	1	1	2	2	15
41~45	—	—	—	—	—	—	—	1	1	1	1	1	2	4	2	13
46~50	—	—	—	—	1	2	—	—	—	2	1	1	—	1	1	9
51~55	—	2	—	—	—	—	—	—	1	—	1	1	—	—	—	5
55~60	—	—	—	—	—	—	—	—	—	—	1	1	—	1	1	4
61~65	—	—	—	—	—	—	1	—	—	—	—	—	—	—	1	2
66~70	—	—	—	—	—	—	—	—	—	—	—	—	—	—	—	—
71~75	—	—	1	—	1	—	—	1	—	—	—	—	—	1	—	4
76~80	1	—	—	—	—	—	—	1	—	—	—	—	1	—	3	81
81~85	—	—	—	—	—	—	—	—	—	—	—	—	—	—	—	—
85~90	—	—	—	—	1	—	—	—	—	—	—	—	—	—	—	1

표 5. 저자수에 따른 분류

저자수 년도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합계
1	6	10	6	2	4	7	3	4	1	8	9	2	4	5	7	78
2	1	4	5	6	7	13	9	9	11	29	22	32	13	18	17	196
3	2	2	3	2	4	9	5	10	16	14	18	21	20	18	31	175
4	—	2	4	5	5	4	3	14	11	11	12	16	15	27	17	146
5	—	—	2	—	1	1	1	1	9	8	6	6	16	9	10	70
6	—	—	1	—	1	3	—	—	—	4	2	4	2	2	6	25
7	—	—	—	—	—	—	—	—	1	—	—	—	—	—	2	3
8	—	—	—	—	—	—	—	—	—	—	—	—	—	—	6	6
9	—	—	—	—	—	—	—	—	—	—	—	—	—	—	1	1

음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1) 창간호 이래 15년동안 大韓醉麻科學會誌가 질로 양으로 현저히 發展하였으며 이는 醉麻科學會의 빠른 성장을 의미하였다.

2) 총 700편을 分類한 結果 증례보고가 반수이상을 차지하여 學會誌의 均衡을 다소 잃은듯 하였으며 특히 증례 1예를 보고하면서 저자수가 5~6명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醉麻科 수련의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뜻이라 사료되었다.

3) 참고문헌을 攷査한 바에 의하면 우리 會員들이 發表한 論文은 다소 도외시되었고 外國論文을 즐겨 인용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있어서는 참고하지 않으면서 참고문헌란에만 길게 나열해 둔 느낌을 가졌다.

따라서 가능한 한 우리의 論文을 즐겨 인용하면 學會誌의 發展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4) 學會誌의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는 증례의 경우에는 저자들 자신의 主張과 의견은 없고 他人의 것을 모방하여 문헌적고찰로 그치는 듯한 경우가 많으므로 저자들의 자기 의견과 主張을 내포하면 學會誌의 發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느꼈다.

5) 증례를 제외한 論文제목에 있어서 거의 大部分의 경우 임상적고찰, 실험적연구란 용어가 지배적이어서 논문제목의 단조로움과 싫증을 느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제목의 반복적 단조로움을 피하고 독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제목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6) 論文의 제목과 내용에 있어서 論文의 형식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겠으나 그보다도 독자를 의식하고 醉麻科 醫師의 의료기술에 도움이 될 수있는 실제적 사실을 많이 보고하여 會員들로 하여금 學會誌에 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다.

7) 대한마취과학회지 창간호부터 1983년도 Vol. 16, No. 4 까지의 총 논문 700편을 한편, 한편 제목을 전신마취, 척추마취, 정맥마취, 소아마취, 노인마취, 수혈, 수액 등등 35 가지로 분류하여 學會誌 후면에 게재하려고 한다.